

學校環境教育의 實態와 發展方向

천경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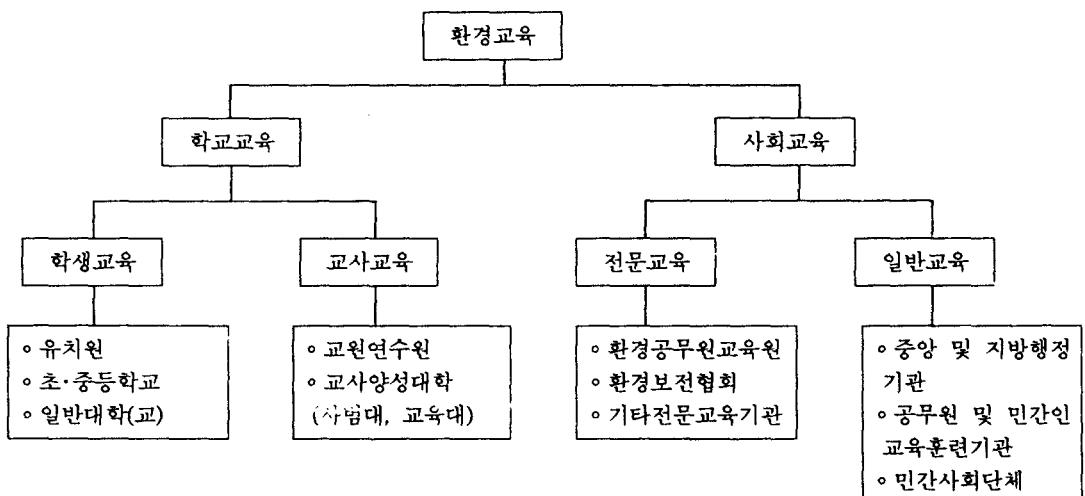
I. 서언

- 자연은 삶의 터전이며 그 속에 깃들어 사는 우리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부여됨.
 - 우리나라를 그동안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등한시하여 대기의 오염, 물의 오탁, 처리능력을 능가하는 폐기물의 발생, 또는 소음·악취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침내 생태계의 파괴까지 우려하기에 이르렀.
 - 한번 오염된 환경의 폐해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것의 원상회복은 많은 시간과 재원을 소요로 하고 있어 더 이상의 환경의 회생을 막고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부터 문제를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역임.
 -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에는 환경행정적 접근, 과학기술적 접근, 사회계몽적 접근, 교육적 접근 등이 있음.
 -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

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경교육을 통해 현재의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환경교육은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임.

II. 환경교육의 체계

-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학교교육은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과 학생을 가르칠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고,
 - 사회교육은 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으로 분류 되며(표 참조),
 - 본 발표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개에 따른 환경내용 반영실태와 학교환경교육 강화에 있어
 - 취약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III. 초·중등 교과서 환경내용 반영

1. 교육과정 전개에 따른 환경내용 반영

1) 도입단계(제 4차 교육과정 : '82~'86)

-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에서 환경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자연의 보호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식 및 정보전달에 비중을 두고 강의나 토론 방식으로 학습됨.

- 환경처는 '82년 "효율적인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연구"을 통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세부요소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였음.

- 4차 교육과정의 환경내용 반영을 살펴보면

- 국민학교 : 슬기로운 생활, 도덕, 사회, 자연
- 중학교 : 도덕, 사회, 과학
- 고등학교 :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물, 지구과학 등에서 자연환경과 환경의 질향상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거론됨.

2) 발전단계(제 5차 교육과정 : '87~'91)

- 자연보호 및 자연보존의 차원에 개발의 개념을 종합한 "환경보전"의 의지를 적용하고 관련교과서에 환경내용이 대폭 반영되는 등 환경교육의 전기 마련

- 환경내용 반영 현황

학교급별	환경내용 교과	환경독립단원교과
국민학교	국어 등 6과목 26권	생활의 길잡이, 체육, 실과, 도덕
중학교	기술 등 10과목 29권	기술, 체육, 과학
고등학교	교련 등 22과목 45권	한국지리, 기술, 과학I (상), 교련

- 환경처는 '87년 "학교환경교육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5차 교육과정에 다음 내용을 제시함.

- 경제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문제에 소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되고 있으며, 각 교과 목간의 내용연계의 부족과 특정영역 또는 내용만이 취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환경교육 내용을 체계화 하고, 환경교육의 영역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독립교과목의 신설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단기적으로 도덕, 사회, 과학 등의 특정교과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탈피하고 전교과에 확산시켜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 학교급별로 특정연령, 특정학교수준, 특정교과 목에 한정되어 지도하는 문제점을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학교급별로 환경교육을 위한 독립교과목의 설치가 바람직하고 문제해결중심, 과제수행중심, 주위환경을 실례로 관찰 습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강조(예: 미국, 영국, 네덜란드, 소련)
- 체험과 바람직한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함. 예) 학교내의 자연학습원, 환경클럽 등
- 또한 학교내 교과교육외의 전담지도요원이 필요하며 교사, 부모와 함께 가불만한 야외의 "자연학습장"의 꾸준한 개발을 통한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예) 미국 콜로라도주, 오레곤주, 위싱턴주의 5, 6학년 대상 야외학습, 일본 문부성의 자연학습 프로그램이나 자연집(nature houses), 청소년집(youth houses)
-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교사 확보 및 현직교원 훈련프로그램에 환경교육 정규코스를 개설하고

- 4차, 5차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구 분	도입단계 (4차 교육과정 : '82~'86)	발전단계 (5차 교육과정 : '87~'91)	정착단계 (6차 교육과정 : '92~)
성 격	◦ 자연보호 차원	◦ 환경보전 차원	◦ 포괄적인 환경교육강화
추진내용	◦ 효율적인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연구('82. 영남대 환경문제연구소 용역)	◦ 학교환경교육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87. (사)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용역)	◦ 제 6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방안 연구 ('91. 한국교육개발원 용역)
결 과	◦ 일부교과서 반영	◦ 관련교과서 대폭 반영	◦ 독립교과목 신설 ◦ 기존이 관련교과목 분산 수록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연구수행기관이 필요함.

3) 정착단계(제 6차 교육과정 : '92~)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차원으로의 교육적 접근의 실질적 핵심부분인 학교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호배타적 관계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도입이 학교환경교육에도 요구됨.

- 환경처는 '91년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학교환경교육강화방안연구”를 통하여 학교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환경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 교육부에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학교환경교육 강화의 당위성에 힘입어 '95년부터 적용되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환경관련 독립교과목을 신설하기에 이른.

2. 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환경교육 강화

- '95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는

- 국민학교 관련 교과목에서 환경내용이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 중학교는 선택과목에 “환경”과목이 신설되어 전학년 주당 1~2시간 환경교육이 이뤄지며
※ 기타 선택과목 : 컴퓨터, 한문, 기타
- 고등학교는 교양선택과목으로 “환경과학(보통 교과), “환경보전”(농업), “환경기술”(공업)의 독립과목이 신설됨.
※ 기타 교양선택과목 : 철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등

- 각 환경교육 독립과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 중학교 “환경”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즉, 환경에 대해 아는 것(knowing), 느끼는 것(feeling), 행동하는 것(acting)을 균형있게 학습하도록 하되, 특히 실천력 배양에 중점을 둠.
- 고등학교 “환경과학”은 여러 학문으로 얻어진 지식을 환경문제의 인식 및 해결에 응용하는 종합과학으로서 각 교과에서 분산·지도되던 환경관련 내용을 집중적,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양선택으로 신설된 과목 특히 중학교의 “환경”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관 및 행동의 변화 등 정의적 목표에 주안점을 둠.
- 고등학교 농업계의 독립신설과목인 “환경기술”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대기·수질 및 토양오염

등에 관한 기초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고등학교 공업계의 독립신설과목인 “환경보전”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의 방지와 정화 등에 관한 기초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농업생산환경, 임업, 축산, 생활과학, 농촌보전위생 등 관련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음.

III. 현행 학교환경교육에 있어서의 취약점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관련 독립과목의 신설과 같은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환경교육은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학습방법, 자체 교사의 양성과 연수,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등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우선, 헌법 제 35조에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및 동시행령에는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또한 일부 일선교사들의 환경교육관이 여전히 경제교육, 청결교육, 보건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어 환경교육에 소극적임.
-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활동이 미약하며, 현장학습 등 효과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강의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사양성의 핵심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관련과목이 극히 제한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현직 연수에서도 환경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일부 시·군·구 교육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교사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욕과 자질배양에 미흡한 실정임. 연수 또한 강의 중심이며 환경지식전달 위주여서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는 전문기관 또는 자문기구와 인력이 부족하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환경처가 '85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정 운영하여온 “환경보전시범학교”도 수나 예산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 및 운영성과의 확산이 미흡한 실정임.

IV. 향후 발전방향

국가수준의 환경교육의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환경권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법에 환경교육의 목표를 첨가하고 가칭 “환경교육법”的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학교환경교육의 장학편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

예) 교육부 장학편수실에 환경교육 장학관, 시·도교육청에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 또는 과학기술과에 환경교육담당관, 시·군·구교육청 학무국 중등교육과에 환경교육담당, 일선학교에 환경교육 주임교사를 설치.

학교환경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는 가칭 “학교환경교육종합계획”을 제정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중·장기계획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제 6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최우선적으로 강화되도록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교환경교육의 목적, 목표,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학교현장의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참여적 활동중심의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환경교육에 적합한 평가체제와 방법의 개발·보급방안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교육 연수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이수단위를 규정해야 하며, 특히 중등교사 양성대학에 환경교육과를 설치하여 환경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담교사양성 후 배출전까지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연수를 전국적, 주기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함.

- 제도적 기반 강화와 더불어 실천적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학교자체의 환경교육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 환경보전학습관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폐수처리장 설치, 환경정화수 심기 및 재생상품의 적극활용 등 제반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고려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 등 현장학습 강화를 위해 “환경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함.
- 글짓기, 그림그리기, 사진찍기, 응변대회, 폐품을 이용한 작품전, 환경도서 독후감 대회 등 환경보전을 주제로 한 문예활동을 강화.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 가정통신문 발송 및 어머니교실 개최 등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하기, 저공해비누 만들어 이용하기 등을 제도.
 -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